"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7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3일(음력 10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김장김치 ·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양주 청련사(회주 상진 스님 · 태고종 총무원장)는 11월 24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청련사가 이날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장김치 12kg씩 100박스와 라면 100박스, 화장지 105세트, 연탄 1만장이다. 사진은 상진 스님을 비롯한 청련사 대중 스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 사진=태고종

"가려졌던 비구니 독립운동, 자료 정립부터"

한국비구니승가硏, 11월 27일 학술토론회

비구니 항일 활동 실체 규명
시대의식 · 공공 책임 발현에도
"보이지 않았던 역사"로 묻혀
명부 복원 · 기념사업 추진키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수행가풍을 형성하고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변두리에 놓여 있던 비구니 항일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일제강점기 비구니 연구의 기초 자료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스님)는 11월 2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근대 격랑 속의 한국 비구니 승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역사 기록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과 근대적 실천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 활동에 대해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을 읽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역사"라며 불교계 내부의 기억 회복과 국가적 차원의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영숙 연구원은 '일제강점기 비구니들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에서 기존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가 김마리아 등 기독교 여성 중심의 도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같은 시대, 같은 조국, 같은 억압 속에서 활동한 비구니들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것.

전 연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미타사 비구니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 사찰을 기반으로 한 구호·연락망 활동, 보문사 은영 스님의 사찰 자주권 수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비구니들의 항일 실천은 분명하게 존재했으나 기록 방식의 한계로 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게다가 속초 보광사가 독립운동 스님 135인을 모신 위패에 비구니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는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비구니 항일 운동이 소외돼 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비구니 항일 활동에 대한 체계적 검증과 복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비구니 항일 운동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비구니들의 활동은 암자, 포교당, 사찰 네트워크 속에서 일상과 수행, 돌봄과 불사에 은밀히 흡수되며 이어졌고 그 기록은 구술, 사진 파편, 지역사회 기억 등으로 흩어져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이 어려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비구니들이 보여 준 사찰 수호, 재산 보호, 피난처 제공, 군자금 후방 지원 등의 활동은 그동안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영역"이라면서 "비구니 독립운동은 몇몇 '영웅적 인물'의 예외적 행동이 아니라 당시 비구니 수행공동체 전체가 공유한 시대 인식과 공공 책임의 발현이었다"고 말했다.

조은수 명예교수는 발제 '불교 신여성의 등장과 비구니의 근대의식'에서 비구니가 근대사 속에서 '수동적 수행자'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활동한 점을 강조했다.

20세기 초반 불교 신여성 등장 등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자아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주체적 의식을 확장해 나갔다"고 분석했다. 또 만공·한암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비구니 선사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근대 비구니들은 수행 전통 계승과 도량 운영을 통해 독자적 수행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하춘생 동국대 사찰경영과정 책임교수와 봉녕사승가대학 교수 효석 스님은 비구니 독립운동의 자료가 사찰 문서, 구술 기록, 지역사회 기억 등으로 흩어져 있어 추가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불교계 차원의 비구니 독립운동 명부 복원과 기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심원 스님은 "비구니 항일 활동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 양쪽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영역"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두일념으로 만마·천불 불태워야"

성파 대종사,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12월 4일(음력 10월 15일) 을사년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금일 결제 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며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돼 만마(萬魔)와 천불(千佛)을 모두 태워버릴 때 불조(佛祖)의 향상일로(向上一路)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시주(施主)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리라"며 결제 대중의 부단한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상근기(上根機) 수행자라야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다"고 안거를 성만한 대중을 격려하며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리지 않으며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고 대교화인(大教化人)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거는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와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에 전념하는 수행 전통이다.

〈종정 · 방장 법어 11면〉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 'AI&미래불교' 불기협 대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 11월 24일 발표
"향후 전법 · 포교 전략에도 도움"
12월 8일 조계사 관음전서 시상식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기획 특집 'AI&미래불교'가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가 11월 24일 2025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허남결)를 열고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창간 31주년 특집 'AI&미래불교'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기획·해설부문 최우수상은 윤호섭 BTN불교TV 기자의 광복 80주년 연속기획 '다시 읽는 조선침략참회기'가, 취재·보도부문 최우수상은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의 '불교계 종교교과서 부재와 편찬 필요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불교신문의 'AI&미래불교'는 AI시대의 흐름에 맞춰 불교적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조명한 기획이다. 불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웃 종교의 대응 사례를 분석했으며, 인터넷에서 AI를 활용해 손쉽게 양산되는 상업적·비불교적 콘텐츠의 범람 문제도 짚어냈다.

특히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좌담회를 통해 AI시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좌담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 AI 윤리선언' 제정의 시급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불교계 최초로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불자와 일반 대중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하고,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대상으로 선정된 현대불교 편집국의 창간 31주년 'AI&미래불교'는 AI시대에 불교가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이 단연 돋보였다"며 "향후 우리 불교계가 전법과 포교 전략을 세우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오후 6시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5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2월 20일(토) 오전 10시 (법문 10시 40분)
◈ 장 소 : 관촉사 대웅전
◈ 내 용 : 기도염불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